

# 정상회담 208회...42국 순방, 지구 11바퀴 돌았다

### 통계로 본 이명박 정부 3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동안 사회복지비 예산이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집권 3주년(2월25일)을 앞두고 '통계로 본 이명박 정부 3년'을 내고 현장 방문과 해외 순방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행보와 경제 지표 등 지난 3년의 기록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해외에서 126차례, 국내에서 82차례 등 모두 208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31회에 걸쳐 42개국

### 경상수지 282억달러, 수출 순위 세계 7위로 주가 2배로 성장...복지예산 역대 최대 비중

을 순방했으며, 이를 거리를 환산하면 44만8180km로서 지구 11바퀴 돈 셈이다.

주가지수는 2008년 말 1,124.4에서 2009년 1,682.7, 2010년에는 2,051.0으로 뛰었으며, 경상수지는 같은 기간 32억 달러에서 282억 달러로 성장했다. 이 기간 수출 순위 역시 세계 12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총지출대비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2007년 25.8%였으나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꾸준히 증가, 2008년 26.3%, 2009년 26.6%, 2010년 27.7%, 2011년에는 28.0%로 늘어났다.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도 2008년 51.0%에서 2010년 56.0%로, 중등교육 취학률도 같은 기간 90.4%에서 96.4%로 각각 증가했다.

또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008년 1741개에서 2009년 1883개로,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이 기간 2.54m<sup>2</sup>에서 2.88m<sup>2</sup>로 늘었다.

현재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은 16개국과 협정이 발효됐으며, 타결·서명(29개국), 협상중(12개국), 여건 조성(7개국)으로 세계 인구 70%, GDP로는 90%를 차지하는 경제권과 FTA가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공적개발원조(ODA)는 2008년 8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10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 취임초 10%대서 40~50%대 전임 대통령들과 정반대 양상

### 李大統領 지지율 추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3년간 국정 지지도 추이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는 '집권 초반 지지율 강세, 집권 중반 이후 약세' 경향을 보였지만, 이 대통령은 정반대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 '춧불시위'로 지지율 10%대로 급 추락했다가 1년이 지난후부터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이 대통령의 집권 3년 월간 지지율 추이에 따르면 지난 해 2월부터 1월까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40%대 중후반 정도였고, 50%대에 진입한 적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한국리서치의 월간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실시되는 것으로 신뢰수준은 95%±3.5%포인트다.

지난해 2월 49.2%의 지지율로 집권 3년차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논란과 천안함 폭침 등의 고비를 거치며 3월 49.1%, 4월 46.3%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5월에는 최고치인 52.0%로 반등했다. 그러나 여당의 6·2 지방선거 참패 여파로 6월 지지도는 3년차 최저인 43.0%로 추락했다.

이후 보합세를 보이다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환 사회'

기조가 호응을 받으며 9월 들어 48.5%로 만회에 성공했고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둔 10월에는 51.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11월 들어 44.2%까지 하락했으나 12월에 곧바로 48.9%로 올라섰고, 지난 1월에는 49.8로 올라갔다. 이 같은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3년 차 초반 40%대 중반이었던 지지율이 이종필 당시 민자당 대표의 탈당과 삼중백화점 붕괴 이후 30%대 초반으로 급락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2년차 때 50%대 중반을 기록했던 지지율이 3년차 들어 각종 게이트가 터지면서 20%대 중반으로 반토막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3년차 전반기 20%대 후반의 낮은 지지도를 얻던 것이 대연정과 사화법 논란을 거친 뒤 연말에 가서는 20%대 초반의 저조한 기록을 냈다.

전체 임기가 불 때라도 정권 출범 때 공공비행했다가 임기가 중반을 넘어면서 갈수록 추락했던 전임 대통령들과는 지지율 경향이 반대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48.7%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취임 3개월 만에 미국산 최고기 파동으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10% 초반까지로 급전직하했다. /연합뉴스



李大統領의 태권도 시범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 조정원)으로부터 명예 9단 단장을 받은 포르피리오 로보 로사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도복을 증정한 뒤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경제성장·외교적 위상 높였다” 野 “민주주의 후퇴·국가재정 악화”

### MB3년 엇갈린 평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3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끌어올렸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야권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위기를 겪었고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당·정·청간 소통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진이(진이명박) 직계인 조해진 의원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드물게 5~6%대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며 G20 정상회의와 해 정상 회의 개최, 한미동맹의 회복 등 외교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당·정·청 간 효율적인 소통과 여야 간 상생협력, 민심통합, 계층 간 화합 부문은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파탄, 국가재정 위기 등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3년이었다. 유신, 5공 독재 시대 때로 회귀했

다”며 “4대강,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현안에서 나라를 ‘강대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불가사지 세, 구제역 등으로 국민고통수만 고공행진을 했다”고 비판했고, 이춘석 대변인은 “말포만 친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민 뒤통수를 친 ‘파벌체’, 진실을 철저히 은폐시켰던 ‘후안무치’, 국민 입을 틀어막은 ‘밀엄치한’ 3차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 3년은 국민과 철저히 유리당한 ‘나홀로 3년’, ‘국민 무시 3년’으로, 747 경제공약은 허공 속에 흩어졌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악몽 같은 3년이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AI 매몰지 110곳 실태조사

## 절반 이상 규정 벗어난 매출관 배수로 없어 침출수 유출 우려

전남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 일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10일부터 6일간 6개 시·군의 AI 매몰지 110곳에 대한 전수(全數)조사에 나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여부 및 악취, 유실 위험 등을 점검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 처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고병원성 AI 매몰지는 영암(47곳)·나주(57곳)·화순(2곳)·장흥(2곳)·여수(1곳)·보성(1곳) 등으로, 여기에 불탄 닭·오리만 320만 마리가 남는다. 나주·영암은 전남도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섰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매몰지에 설치해야 하는 침출수 배출관(유출관)의 경우 42곳만 규정대로 설치했고 나머지 62곳(영암 6·나주 57)의 배출

관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수로와 저류조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암(6곳)과 나주 15곳 등 21곳은 물받이 등을 허술하게 만들어 침출수가 외부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는 그러나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나 매몰지 유실 등 우려됐던 2차 환경오염 현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매몰지 침출수 배출관과 배수로 미설치 매몰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위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몰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규정에 맞지 않게 살처분이 이뤄진 곳이 있었다”면서 “매몰처분 뒤 1개월이 지나지 않는 곳도 아직 남아있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경기자 dok2000@

## “축산업 말살 획책하는 망언”

### 최인기 의원, 김무성 원내대표 발언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구제역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잇단 발언에 대해 “축산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축산업 말살을 획책하는 망언”이라고 규정된 뒤, “민생국회를 자처하며 국회 정상화에 열을 올렸던 공당의 대표가 불인과 분노에 가득 찬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정권의 오만함이 그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축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축산 무용론’을 들먹이며 ‘외국산 쇠고기 맛있다’는 망국적 예찬론까지 펼친 김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축산

업 진흥에 여당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제역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후야방문’은 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산인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축산업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 우리나라 축산정책을 전면 바꾸어야 한다”는 “축산 무용론”을 주장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번 구제역도 일부 축산인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생했다”며 “수십 명의 축산인이 동남아 관광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걸 잘못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본교캠퍼스 전경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이환수 이사장

#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문연구소장, GBC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졸,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교(Th.D.), (현)월송교회 담임
3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대원 (M.Div.), 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취득, (현)주님의교회 담임
4	김영호	구약학	전남대학교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이스라엘헤브리대학고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임, 전남대학교강사, 광주서원교회 협동목사
5	김원식	교회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위싱턴대학교졸, (현)호신대학교강사, 목동중앙교회 장로
6	김응렬	실천신학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ITS 목회학(박사 과정), 한국사회교육원 교수, (현)세계복음사역원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강력자유훈련센터 원장, (현)남양주 푸른초장교회 담임
7	신동구	실천신학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8	이기수	역사신학	(현)광주성서교회 담임
9	이길수	부흥신학	갈리골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0	이박행	전인치유	전남대학교 졸, 총신대신대원 (M.Div.), 동아연제대학교 사회복지와학 졸업, (현)복내 전인치유선교센터 원장, (현)천복산 회년교회 담임
11	정종돈	조직신학	(현)광주빛과소금교회 담임
12	정현필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광주동광교회 장로
13	오안도	제자훈련	건국대학교 졸업, 내비게이토신교회, ENM신교회전신교사
14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랑경원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중앙교회 담임
15	조태의(교령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GBC이사 및 교목실장, (현)담양읍교회 담임
16	진정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신대학교, (현)배들중앙교회 담임
17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현)영광명산제일교회 담임

##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최의 교육환경
  -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체물(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간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출(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중국교회, 몽골교회,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교회, 베트남교회, 캄보디아교회, 태국교회, 인도교회, 파키스탄교회, 중동 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을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십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3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를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 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061) 381-0000, 1365 (교과과장 : 010-3840-4998)

세린사회교육원

- 개강과목 : 대체의학(수지침, 뜸)
- 개강일시 : 3월3일(목)
- 기 간 : 8주 과정 (매주 목요일)
- 수 강 료 : 월 5만원
- 강 사 : 문형식 (교려수지침학회)
- (\* 담임교역자는 수강료 50% 할인)

DJm 카페 cafe.daum.net/biblecoll <광주바이블칼리지>를 치세요!!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평생교육의 1번지

광주바이블칼리지 세린사회교육원

Gwangju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TEL. 061) 381-1365/0000

TEL. 061) 381-1367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